

그림비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학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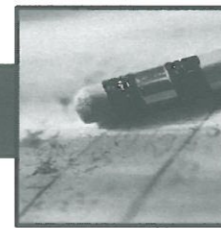
- ISSUE
- 지정이름안에
- 정보꾸러미
- 지정人이야기



내림비치

학부장님 말씀	1
ISSUE	
한성대학교 35주년	2
2007년 대통령선거 기록엑스포	4 6
자정이름인에	
우리 과 취업 전망	8
동문 체육대회	10
정보 꾸러미	
20대에 재테크	11
누리자! 학교의 여러 혜택	14
이 책과 영화를 추천 합니다	17
자정인 이야기	
이용남 교수님 인터뷰	19
정진식 교수님 칼럼	22
스물 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24
편집 후기	27

1. 강순애 교수님 격려사



그림비 출간을 격려하며

올해의 가을은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 놓은 듯이 아름다웠습니다. 산하가 형형색색으로 물이든 나뭇잎들이 연출하는 단풍의 향연에 눈이 부셨습니다. 노오란 은행잎의 가로수들이 햇살을 받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참아 그대로 바라 보기가 가슴이 아릴 정도였습니다. 젊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을이야기에는 아기자기하고 감칠 맛나고 가슴 뭉클한 추억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추의 시기에 그림비를 출판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림비가 소식지로서 깔끔하게 새단장을 하고 다양한 글들을 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림비를 출판하느라고 애쓴 그림비 지도교수님과 Vitamin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식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지식정보학부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4살 지식정보 학생회를 이끌어온 차준호 학회장 이하 모든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림비는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꼼꼼하게 실어서 그림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해 봅니다. 전체를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2007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중요한 기사들을 나름대로 잘 실고 있습니다. 'Issue'에 들어 가면, 한성대 35주년과 관련한 행사들을 아기자기하게 사진과 함께 실었놓았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라는 인용문을 통하여 선거에 임해야 하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18세 투표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회 기록엑스포의 이모저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정이름안에' 는 우리과 취업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문들과 재학들이 함께한 동문체육대회를 통해 얻은 끈끈한 유대관계와 동문회 활성화에 대한 바람들을 담았습니다. '정보꾸러미'에는 '20대에 재테크',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및 혜택, 추천 책과 영화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다루었으며, '지정인 이야기'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이용남 교수님께서 도서관계에 발을 딛으신 계기와 여러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인터뷰하여 엮었고, 정진식 교수님께서 중국 길림성 장춘세무대학에 지난학기에 교환교수로 다녀오신 이야기와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장백산 천지와 하얼빈, 압록강변의 지안 등을 다녀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에 도전 한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4살 지식정보 학생회의 여러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성대는 개교 3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윤경로 총장은 "35주년은 화합, 단결, 변화를 모토로 한성대 학교에 새로운 변화를 통해 발전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각 학부 또는 학과들도 이에 걸맞는 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는 금년에 사서교사 공채시험에서 서울지역에서는 3명이 합격하여 각 공립학교에 사서교사로 임용되었고, 인문대학의 우수 학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에는 기존의 문헌정보 학전공에 이어 기록관리학 전공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관리학을 공부하여 기록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학부의 모든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역동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는 35살의 한성대학교와 27살의 지식정보학부를 빛내주실 주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림비 또한 이번호를 계기로 여러분의 진정한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2007년도 2학기가 진심으로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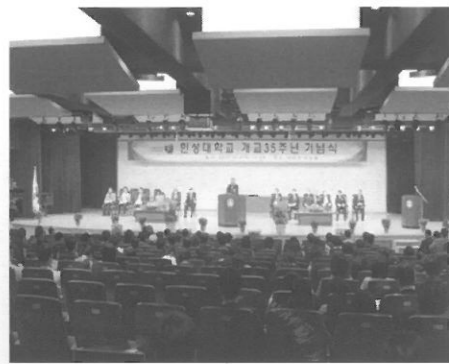
사랑합니다. 여러분!!!

Issue

한성대학교 35주년

1. 35주년 행사

한성대학교는 올해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개교 35주년 기념식이 낙산대강당에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열렸다. 한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에게 표창을 내리고 모교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오신 총 동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개교 35주년 기념행사>

<개교20주년 기념식 모습>

학생들에게 떡과 공 CD를 나눠주고 학생식당에선 잔치국수와 만두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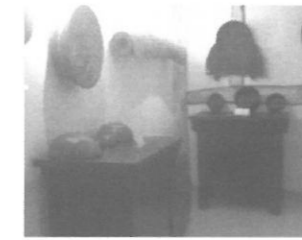
2. 대학사료관

학교 안팎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줄을 이었는데, 특히 한성대 도서관이 자리한 미래관에서는 1층에 '대학사료실'을 개최했다. 대학 사료실에는 농경생활전시관과 한성대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물품을 전시해놓았다.

농경생활전시관에는 낫, 호미부터 도리깨 솔, 향아리, 물레, 뒤주까지 농촌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다.

또 한성대학교가 처음 시작한 19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변화된 모습, 간행물과 창간호가 1호부터 전시되어 있다. 특히 80~90년대 학생들의 입학확인증부터 시작하여 학생증, 성적표, 시험지까지 전시되어 있어 마치 과거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대학 사료실에 전시된 자료들은 한마디로 한성대학교가 걸어온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한성대학교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가늠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 단과대 행사 & 학교행사

여러 분야의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능력과 깊은 곳에 숨어있던 끼를 100% 하고도 35%더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창의 역할을 하였다.

인문대학에서는 개교35주년 기념 '국학능력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국학능력경시대회는 우리말의 중요성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과대학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한성대학교와 관련 된 자유주제로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다.

교육개발지원팀에서는 자신이 들었던 강의 중 학문적 자극, 새로운 깨달음, 자기 계발의 계기를 주었던 감동 강의를 소개하는 우수강의 수필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 밖에 많은 학부에서 취업 페스티벌을 열어 취업의 문턱에 서있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큰 도움을 주었다.

김병찬 아나운서를 초청해 '인터뷰 성공전략'이란 주제로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경품추천과 도전! 취업 골든벨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4. 한성의 새 얼굴, UI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성의 새얼굴 신규 UI(UniversityIdentity)가 탄생하였다. Hansung의 이니셜 'H'를 이용하여 역동적이면서 열려있는 화살표의 이미지를, 미래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프론티어정신, 다양한 문화, 학문을 열린 사고로 받아들이는 한성인의 지성을 상징하고 모던 & 심플한 3D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이정표" 가 되겠다는 한성대학교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35주년을 맞이하여 한성대학교에서 개최된 많은 행사들은 앞으로 한성대학교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07 대통령선거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연설 중 일부분이다.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국민의 심판이고, 국민의 투표 또한 미래 우리사회의 희망이다. 이번 2007년 12월 19일에 치를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나갈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취업문제와도 관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나는 후보자 그 자신에게도 결격 사유가 없고,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학회지 내에서도 지식정보학과 학우님들에게 대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하는 바램으로 이번 2007년도 대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해보았다.

1)대선후보의 선거공약

이명박

- 1.대통령 직속기관, 공무원 수 대량감축 및 구조조정
- 2.기업, 부동산 규제완화
- 3.한반도 대운하 건설
- 4.대북사업 축소 및 전면중단, 한미동맹 강화정책
- 5.비공무원 비정규직 일자리 증대

권영길

1. 생애주기별 노동자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2. 교육 /훈련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3. 국가고용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정동영

- 1.우주관련 사업 및 철도사업
- 2.국공립 대학등록금 인하
- 3.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5.정년 70세로 연장
- 6.2011년 대입 전면 폐지

이인제

1. 공교육 고품질화를 통한 서민, 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2.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장학제도의 획기적 확대
3.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대로 교육여건 개선
4. 과거 수출진흥대책과 같이 고용창출전략회의체를 구성하여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
- 5.신경제대특구 구축, 법인세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이회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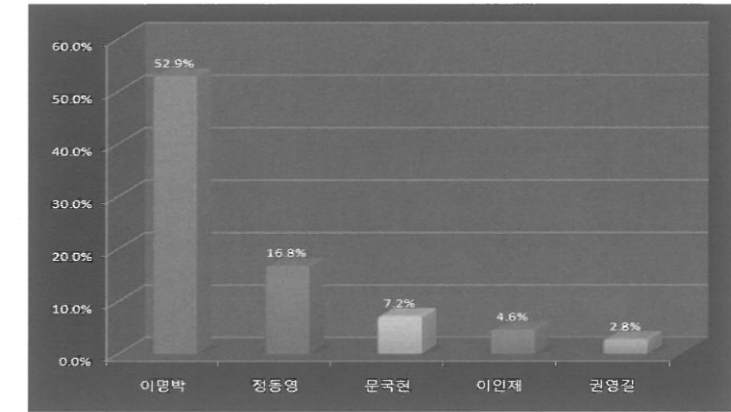
- 1.우리의 기업들이 마음껏 뿜 수 있는 자본주의, 기업인의 사회참여를 유도
- 2.헌법 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
- 3.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치혁명
- 4.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사교육 재앙으로부터 가정 을 되찾아 주는 교육혁신

2)대선여론조사 :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응답률이 2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실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지지율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대선관련의 지지율을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이 여론 조사 뿐이기에 대선의 결과를 예측 가능한 것도 이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회창씨가 출마선언을 하기 전의 여론조사기관의 평균조사결과)

(전국의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TNS 공동으로 조사. 최대 허용 표본오차 95%,신뢰 수준 +- 3.1%)

후보지지율

- 1위 : 이명박 (38.5%)
- 2위 : 이회창 (20.8%)
- 3위 : 정동영 (12.3%)
- 4위 : 문국현 (4.7%)
- 5위 : 권영길 (2.3%)
- 6위 : 이인제 (1.9%)
- 7위 : 심대평 (1.3%)
- 8위 : 정근모 (0.2%)



정당지지도

- 1위: 한나라당 (46.4%)
- 2위 : 대통합신당 (10.6%)
- 3위 : 민주노동당 (4.1%)
- 4위 : 창조한국당 (3.1%)
- 5위 : 민주당 (2.6%)

이번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선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대학생이 파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기까지 전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피를 흘렸던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대선 휴일에 무엇을 하고 놀지 생각 하지 말고, 좀 나이에 걸맞게 정치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후보 개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각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에 있었다. 대선날짜가 오기 전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도덕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제시, 소속된 당의 정책, 안정된 국정운영과 문제해결능력 등 대선후보지지율이 바뀌게 될 변수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어느 누가 17대 대통령이 되건, 국민들에게 국가원수로서의 결단력과 실행력 및 신뢰감, 안정감을 주어야 할 것이며, 국가적인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토론] '18세 선거권'에 대한 필자의 짧은 소견

지난 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자하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가장 큰 선거인 대선이 바로 앞에 다가 온 지금의 시점에 선거권 연령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가시화되고 있다. 18세라는 나이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지워지는 나이임에도 투표의 의무만 없다는 이유로 붙어져 나오는 주장이다.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있지만 18세 선거권을 성급하게 실행하는 것은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점점투표율이 높아지고는 있다하지만, 대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등학생이 대선투표를 하기에는 주관적 판단력이 미숙하지 않은가 싶다.

그러므로 필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보다 먼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확립된 후 올바른 선거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록엑스포

‘기록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제 1회 기록엑스포가 11월 1일부터 11월 3일, 3일 동안 서울무역센터에서 열렸다. 기록엑스포는 행정자치부 인 국가기록원 주최, 한국 기록 관리 협회와 한국 기록 관리 학회의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기록엑스포는 '대한사람 대학역사 기록으로 보전하세' 라는 주제로 기록혁신 사례를 포함한 기록물 전시 및 기록 보존 장비를 전시하고, 기록문화 체험행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기록엑스포는 기록물 전시와 세미나,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단 기록물 전시 코너에서는 4개관으로 유형별로 기록전시를 구분했다. 대통령 기록을 포함한 국가기록관, 기록혁신관, 중앙부처와 정부산하공공기관의 기록을 다룬 특별관, 민간/해외기록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가기록관은 한국 기록관리 역사와 주요 정책 및 사건관련 기록물을 소개해 선사시대 때 부터 고려, 조선, 개항기, 근대, 현대 Zone으로 구분해 놓았다. 한국기록관리 역사와 주요 정책 및 사건관련 기록물, 현대 Zone에서는 역대 대통령 재임 중 주요기록물을 위주로 선물류까지 포함해 전시했다. 기록 혁신관에서는 전자정부와 기록관리 혁신성과, 향후 기록관리 전망을 제시해, 기록관리 혁신사업 및 국가기록원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특별관에서는 외교관의 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 정부산하공공기관의 기록을 전시했다. 외교관기록에서는 대한민국 성립이후 주요 외교정책 및 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요 외교관련 문서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최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까지 전시되어 있어 흥미로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트에서는 여태 열렸던 선거의 표어, 포스터, 선거공약 자료등과 함께 투표함과 투표용지등을 함께 전시해놓았고, 정부산하공공기관 파트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준비한 국내외의 주화와 지폐 및 훈장등을 전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중국등의 지폐를 시대별로 전시해 놓아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기록엑스포는 전시 말고도 다른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세미나이다. 기록관리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최신 기록 관리 기술의 추세와 적용사례 및 연구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 관리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이고, 대략 40분정도 간격으로 다른 주제가 발표되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기록관리환경을 개선하고 기록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기록학을 배우는 지식정보학부의 학생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배울 것이 많았던 좋은 기회였다.

세미나말고도 함께 진행된 부대행사는 기록전시관에 함께 진행되었던 체험행사이다. 체험행사에는 직접해 보는 한지제조와 탁본체험, 공문서 만들기, 국새 찍기, 명필코너, 보존상자 만들기등이 있었다. 현장에서 해리된 재료를 직접 외발뜨기해 한지를 만들던 코너는 매우 흥미로웠다. 자기가 만든 한지를 가지고 직접 탁본도 찍을 수 있었다. 또, 자기가 직접 만든 공문서에 국새를 찍는 체험행사도 인기 있었던 코너였다. 다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축제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도하고, 기록문화 행사의 장으로 다양한 참여기회를 부여한 체험행사는 가장 인기있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다.

기록엑스포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였다. 기록학을 배우는 우리 과에서는 꼭 가볼만한 행사였고, 그 만큼 얻어 올 것도 많은 뜻 깊은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마지막 날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우리의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기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기록엑스포는 사람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문화의 축제로 내년 내 후년에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록엑스포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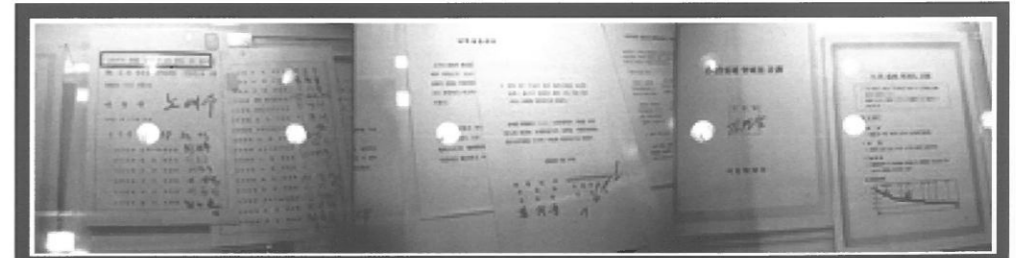
서울무역센터에서 열린 기록엑스포



기록 복원작업



기록엑스포 체험행사- 공문서만들기,보존상자 만들기, 한지제조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시된 남북공동선언

현재 우리사회는 20대 젊은이들의 취업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으니,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0%도 채 못 미친다는 발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쓰라리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자신의 꿈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지식정보학부를 졸업한 후의 취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키워드 에디터(Keyword Editor)

: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관련 기업의 광고나 설명 문구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키워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키워드 에디터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광고를 심사하고 제안하는 컨설턴트인데, 일의 특성상 문헌정보학과나 IT온라인 관련 학과 전공자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특정 전공 이수자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키워드 에디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검색사(Information Searcher)

: 정보검색사는 정보검색대행업체나 연구소, 신문사, 인터넷 콘텐츠 업체 등에서 산업정보, 비즈니스정보, 과학기술정보, 특허정보, 학술정보 등을 수집, 가공하여 이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정보검색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집, 가공 능력,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3. 웹서퍼 및 인터넷 관련업

: 검색엔진업체에서 인터넷 정보자원이나 웹사이트를 수집, 분류하는 서퍼(surfer)는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직종이며, 실제로 문헌정보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기반 콘텐츠 제공업체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가공, 정보의 조직 및 제공, 웹 마스터, 웹 기획자, 웹PD, 웹디자이너 등에 전산능력을 가진 정보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4. 정보기술(IT) 컨설턴트

: 정보기술컨설턴트는 해당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사람이다. 정보기술컨설턴트는 해당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등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문제점, 효율성, 경제성 등을 분석한다. 조사, 분석 사항들을 토대로 정보시스템의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주요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여, 기업의 정보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보기술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정보보안 응용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보기술과 종합적인 컨설팅의 능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5. 아키비스트(Archivist)

: 아키비스트란 기록물의 생산, 활용, 평가, 수집, 폐기, 보존, 정리, 기술, 참고 서비스등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아직까지 통일된 우리말이 없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관리인', '기록관리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으로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체 인원 중 1/4이상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6. 독서 지도사

: 어린이와 책 읽는 습관과 책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전문가를 독서 지도사라 하며, 자녀들의 인성교육과 논술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독서지도사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독서 지도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학원, 어린이 서점이나 어린이 책 대여점,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독서 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는 없으며, 한우리독서운동본부, 한국인간과학 연구회, YMCA와 같은 사설단체나 이화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사회교육원, 신문사의 문화센터 등에서 독서지도사나 독서, 논술 지도사 강좌를 수강하면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독서 지도사 활동을 할 수 있다.

7. 정보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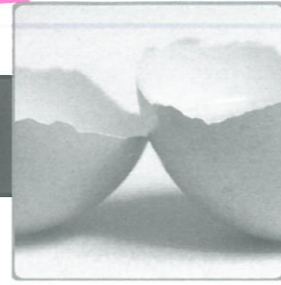
: 통신망을 통하여 각각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로 비디오텍스, 텔레텍스트 시스템 등에서의 정보 제공자를 말한다. 보통 백과사전, 부동산 등의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IP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의 처리·저장·송출·배급 등을 위해 시스템이 갖는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판매한다.

이 밖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실시한 졸업생 취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조사에서 취업을 한 직장으로는 민간회사·개인사업체, 대학,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정부기관(공무원·군인 등) 등이 있었으며, 이들 직장에서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마케팅 관련 사무원, 총무 사무원, 정부행정사무원, 사무보조원과 같은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소나 대기업, 각 분야의 컨설팅회사, 언론방송사, 병원 등의 정보자료실, 정보서비스 회사,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출판사나 대형 서점 등의 지식 유통업체에 진출하고 있고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독서지도, 정보검색, 전자출판 전문가, 컴퓨터 사용 교육 강사로도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벤처 창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이나 교수요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문헌정보학은 중요한 위치를 지니지 않는 학문이다, 취직할 곳이 도서관 사서나 사서교사 말고는 없다는 등의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희망을 잃고, 사회에서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몫이다. 가만히 앉아 사회 구조만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젊음과 열정, 자부심으로 우리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의 모든 이들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훗날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젊은 인재들이 되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께하는 즐거움] 동문체육대회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낙산관에서 지식정보학부 동문체육대회가 열렸다. 비가 와서 행사는 실내에서 예상시간보다 1시간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지금 학과를 이끌어가는 재학생들과 이미 학과를 졸업해 지금의 위치에서 한성대 지식정보학부의 이름을 빛내주고 계신 선배님들과의 유쾌한 만남을 가져보자.

주말이고 비 까지와서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이 많았던 우리들의 걱정과는 달리 예상 외의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참여해 동문 체육대회를 빛내 주었다.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지금 과를 대표하고 있는 학생회의 소개로 동문체육대회의 문을 열었다.

소개를 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참석하신 80년대에 입학한 선배님들과의 세월의 차이에 새삼스레 웃기도 하셨다.

체육대회라고는 하지만 선배와 후배들 간의 유대감과 친목도모를 위해 열린 행사로 각 종 스포츠를 하면서 선배님들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농구, 피구, 배구 등의 구기종목과 훌라후프 돌리기, 줄넘기등의 종목이 있었다. 재학생 팀과 졸업생 팀이 서로 편을 나누어 각 종목에 참여했다. 각 팀이 서로 자기 팀이 이기라고 낙산관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응원전을 하면서 체육대회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재학생 팀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으로, 졸업생 팀은 세월은 지났어도 여태껏 닦아온 실력과 노하우로 서로를 이기겠다는 포부로 종목에 임했다. 하지만 재학생 팀의 열정은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이기지 못했다. 대부분의 게임은 선배님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재학생 팀이 지긴 했지만, 재학생 팀은 선배들과 몸으로 부딪치고 소통하면서 게임을 했던 그 시간에 더 의미를 두었다.

종목 중간에 훌라후프 돌리거나 줄넘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누가 더 오래 훌라후프를 돌리고, 누가 더 줄넘기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다. 여기서 최종에 남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동문체육대회가 모두 끝난 후, 뒤풀이 자리에서는 후배와 선배가 지식정보학부라는 과 안에 있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학교, 같은 과라는 이름으로 몇 십년 전에 졸업한 선배들과 까마득한 후배들이 함께 할 자리가 얼마나 있겠냐만은 이런 행사는 선배와 후배와의 의사소통과 좀 더 끈끈한 관계와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다. 이번 해에 지식정보학부 동문회의 회장이 선출되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식정보학부 동문회는 꾸준히 발전해 지식정보학부의 큰 의미 있는 행사를 계속 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부 부장 - 06 김유리

'20대 재테크' 일편 부자 된다!

요즘 재테크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 '연예인 누구 10억 만들기' 같은 화제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도 나쁘지만은 않다. 재테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적립식 펀드와 CMA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적립식 펀드

아직 20대인 우리들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립식 펀드. 아직 경제에 눈뜨기도 전인 우리들이 요즘 너도 나도 다한다는 적립식 펀드를 알고 있었다. 적립식 펀드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적립식 펀드를 하면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고 가장 중요한건 안정적이다 라는 것이었다.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직 어린 우리들에겐 더없이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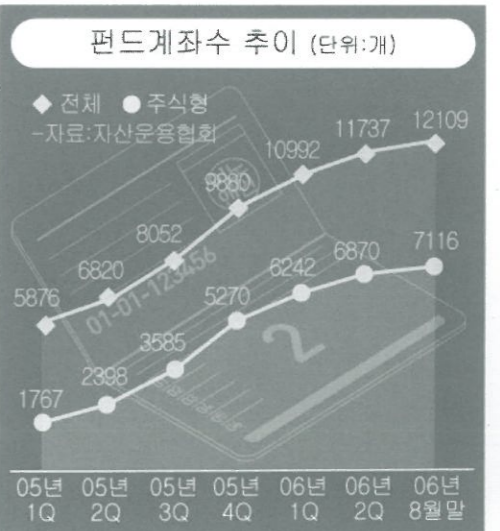
우리들을 적립식 펀드의 가장 큰 장점만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도 나도 다 하니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립식 펀드, 그것에 대해 파헤쳐보자.

적립식 펀드란,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른 펀드와는 달리 적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기간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목돈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2명중 1명은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우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사람의 뜻처럼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금과는 다르게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금은 꾸준히 돈이 쌓이는 것이지만 적립식 펀드는 적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원래 목적은 투사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못 탄다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펀드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적립식 펀드는 요즘 600개가 넘는 상품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출시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상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의 말에 휩쓸려 펀드를 계약한다. 이러한 행동은 돈 한번 벌어보려고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날려버리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tip 펀드 고를 때 이것만은 체크하자

- 내가 펀드를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 몇 년을, 얼마씩, 매월 몇 일날 적립할 것인가
- 펀드의 종류는 무엇인가
- 상품의 운용 스타일은 어떠한가
- 현재보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는가
- 타 펀드와 비교할 때 수수료체계는 어떠한가
- 해당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실적은 어떠한가
- 펀드에 관입되는 대표 종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적립식 펀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몇 년간 얼마를 낼 수 있느냐가 자신이 펀드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돈을 분산하여 투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 결혼자금 등은 기간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 후에는 펀드의 수익률을 본다. 수익률을 볼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진 상품이 무엇인지 보다는 얼마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자신이 투자할 것은 지금이 아닌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만 따져도 적립식 펀드를 결정할 때 고민하는 것이 반은 줄 것이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선택한 것은 신뢰를 주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CMA통장

CMA란 증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상품인데 맡기는 금액에 제한이 없고 체크카드 등으로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도 부담없이 할 수 있다.

5년에서 7년 정도는 불입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 펀드와는 달리 CMA는 불입기간이 한달에서 최장 1년이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단기여유자금, 즉, 방학때 바짝 알르바이트를 해 번 돈이나 새뱃돈 등을 넣어두어 이자를 불리기에 적당하다.

CMA는 크게 증권사 CMA와 증권사 CMA로 나눌수 있는데 증권사CMA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우려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입금한 돈을 PRI(환매조건부채권)으로 운용하는 상품인 경우 증권사CMA보다 이자율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률은 주로 4.5~4.9%정도로 1%도 안되는 일반은행 통장 이자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

무엇보다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언제든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은행과 연계계좌를 만들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일부 증권사와 증권사에서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후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할 점.



-그밖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재테크

*청약통장

대학생이 적은 돈으로도 할수 있는 재테크중에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만들면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좀더 일찍하고 싶다면 고려해 볼만하다.

청약통장의 한 종류인 청약부금은 한달에 최소 5만원만 입금해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만들 수 있다.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2년정도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졸업후 다른 사람들보다 3~4년은 먼저 아파트 장만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년이상의 장기상품이지만 소액적립도 가능하기까 대학생 때 적은금액을 불입하다가 취직한 후에 금액을 늘려 적립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혜택, 연말소득공제 혜택, 20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은 상품이다.

굳이 금융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는 많다. 현금대신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모아둔 포인트 등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 또한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테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다. 투자상품이나 방법등 많은 지식을 발로 뛰여 습득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 단계일 것이다. 4년 이상이 되는 긴 대학생활 동안 꼼꼼히 관리한 통장하나가 졸업 후 목직한 목돈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추천 도서

• 한국의 젊은 부자들 : 이 책은 한국에서 현금자산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30~40대 젊은 부자 681명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에 바탕하고 있다. 2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한국 젊은 부자들의 성공투자 노하우로 주식에서 부동산, 경매, 세금 등에 관한 젊은 부자들의 노하우에 대해 말하고 2부는 한국 젊은 부자들의 성공투자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비교적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목욕탕에서 만난 백만장자의 부자이야기 : 이 책은 한 평범한 직장인이 무작정 백만장자를 만날 수 있다는 목욕탕으로 달려가 백만장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다.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소설 형식으로 되어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

백만장자가 주인공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고 딱딱한 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자!

학교의 여러 혜택

아직도 비싼 등록금으로 수업만 들으러 학교에 오시나요? 조금만 발품 팔면 한 학기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소소한 정보부터 학원비 제공 혜택까지! 지금부터 한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교육훈련지원금

대학생이 되었다고 등록금 이외에는 용돈 한 푼 안주시는 부모님. 이젠 내가 번 돈으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아르바이트로 학원비를 대기에는 조금 벅차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학원비의 반액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육훈련지원금'이다. 하지만 절차가 워낙 복잡한 까닭에 자칫하면 훈련금을 받기도 전에 한 달이 지나는 수가 있다. 교육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도교수님의 서명이 들어간 상담서류와 학원 수강증, 영수증,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가 모두 필요하므로 하나라도 빠뜨리면 창구에 다시 와야 한다. 특히 출석증명서류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심하자. 지도교수는 '종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조회→→지도교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인성검사를 받았다는 서류도 필요한데 인성교육시간에 받았다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률이 80퍼센트를 넘기면 지원금을 지급해주는데, 이때 돈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장으로 입금된다.

2. 취업정보센터

대학은 졸업했다. 할 일은 없다.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눈치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학생활 이후가 막막하다면 취업정보센터를 찾아가보자. 넘치는 취업정보로 당신을 백조, 백수에서 탈출시켜줄 것이다.

공채관

기업 입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곳이다. 2007년 하반기 기업들의 공채 모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다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맞춘 전략정보를 제공한다. 커리어라는 취업포털사이트와 연동하는 서비스로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취업캠프

겨울방학을 이용해 취업지원서비스에서 1박 2일로 합숙을 통해 취업면접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경험, 면접시험능력향상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1일차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면접, 면접 유형별 강의, 토론 면접 실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전시 등을 하며 2일 차에서는 개인 면접 실습, 프레젠테이션 실습, 개별면접 실습, 놀이면접 실습,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을 한다. 준비물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용 정장이 필요하다.

취업촉진장려사업

이번 방학에는 취업지원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한성대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 4개월간의 취업역량개발교육 및 1:1 전문컨설팅(담임컨설턴트), 인사담당자 초청특강, 구인업체 직접 채용알선, 면접기회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자와 성실히 참여 가능할 마음이 있는 분을 우선 모집 한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2007년 11월 15일(목) ~ 11월 23일(금) 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대상자는 2007년 8월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job@hansung.ac.kr로 접수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를 바란다.

3. 노트북 대여

휴강과 휴강이 겹쳐서 1,2교시와 8,9교시에 수업이 있는 날엔 집에 다녀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미래관에서 내내 DVD만 보기엔 공강시간이 너무 길다. 컴퓨터로 과제도 하고, 쉬면서 게임도 하고 싶지만 언제나 만원상태인 실습실에선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노트북이다. 예전에는 학생증과 신분증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대여가 가능했지만, 분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제는 학생증과 신분증 모두가 필요하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공무원증만 인정되므로 이 점 유의하자. 일단 노트북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 30분만에 배터리의 반이 날아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안정된 사용을 위해서는 미래관 5층 노트북 전용석이나 카페테리아의 구석진 자리, 빈 강의실의 전원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 등이 있다. 스테디라운지에서는 플러그가 없는 자리에서도 멀티탭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와 같이 사운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미래관 자유실습실에서 이어폰을 대여해주고 있다. 이어폰은 학생증만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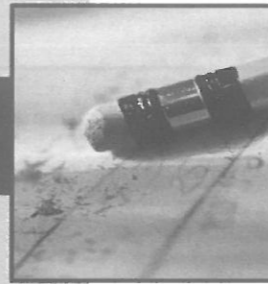
4. 저자와의 만남

유명 책의 저자를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 바로 저자와의 만남! 한성대학교에서는 매년 문화행사로 유명 저자를 한 분 모셔서 초청 강의를 듣는다. 올해 2007년 11월 21일에 열리는 저자와의 행사로 13회가 되는데 이번 초청 저자는 김탁환 교수이다.

김탁환 교수는 불멸의 이순신과, 리심, 부여현감 귀신 체포기 등의 책을 저술 하였으며 이번에 강의 하게 될 내용은 "백탑파와 지식인의 삶" 이라고 한다. 여기서 백탑파란 영조, 정조 시대 때 백탑 아래 모여서 시문을 공부하고 경세를 논한 지식의 모임이었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11월 21일 2시 미래관 DLC에서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편집부 기자 - 07 정지환, 07 최현지



이 책과 영화를 추천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영화들은 흥미위주의 영화가 아닌 영화 내에 무언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한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 갈 수는 있으나 여러 사람들에게 작품성을 인정받고 평이 좋은 영화들이다.



천국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Heaven)

| 이란 | 드라마, 코미디 | 87분 |

신발 한 켤레를 잃어버리고 남은 한 켤레를 번갈아 바꿔 신어야 하는 궁핍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오누이의 맑은 성장기를 담은 이란 영화.

[[이란 영화라는 것이 영화를 선택할 때 사람들에게 머뭇거림을 가지게 할 지도 모르겠지만 영화가 시작 되자마자 그 거부감은 사라질 것이다. 어린 천사들이 주는 감동과 더불어 여러 재미적인 요소들은 관객이 영화를 자연 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Die Bad)

| 한국 | 드라마, 액션 | 98분 |

류승완 감독과 류승범의 데뷔작. 건달과 형사라는 폭력의 환경 속에 노출된 채 서로 교차하며 각기 다른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다. 영화 제목에서부터 의미심장한 의미를 던져 준다. 이 영화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 단락의 소재목이 다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다. 중학교 CA시간에 처음 본 영화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멋있는 조폭 코미디가 아닌 리얼리즘을 강조한 영화였다. 지금 다시 봐도 멋진 영화고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영화다.]]



피아니스트 (The pianist)

|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 드라마, 전쟁 | 148분 |

피아니스트.. 전쟁으로 고통과 억압받는 유대인 피아니스트인 스피elman은 가족을 잃고 이리 저리 도망 다니다 어느 폐허에 들어가 살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순찰을 돌던 장교에게 발각 되지만...

[[이 영화는 감동을 많이 받는 영화이다. 필자가 고등학생 때, 이 영화를 봤다. 물론 그때는 그다지 재미는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는 영화들 중 하나다. 이 기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여전히 그 감동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 이탈리아 | 코미디, 드라마 | 122분 |

인생은 아름다워는 1930년대 말 이탈리아에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 유대인 귀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영화는 여타의 다른 유대인 학살에 관한 영화와는 다른 시각으로 유대인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 역시 내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영화다. 보통 흥미위주의 영화들은 쉽게 잊혀 진다. 하지만 이런 류의 영화만큼은 내가 죽을 때 까지 머릿 속에 남아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 필자가 영화를 보고 처음 온 것이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추천 도서

가을.. 독서의 계절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얼마나 많은 책을 보았는가? 또한 어떤 장르에 책을 읽었는가? 많은 책을 소개할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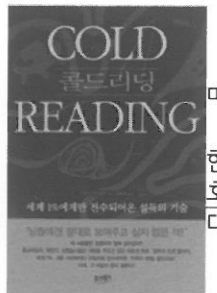
모모 | 미하엘 엔데 | 한미희 역 | 비룡소 출판사 | 정가 8500 |

<모모>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의 신비한 비밀에 대해 쓴 책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독자들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쓰러진 실패를 맛보고 있는 어른들에게,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예전에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쉬던 따스한 정, 상상의 세계, 행복한 감정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고 있는 듯한 지금 어른들에게도 이 책이 소용 있을 것이다. <모모>는 독일 사람이 쓴 우리 나라 사람들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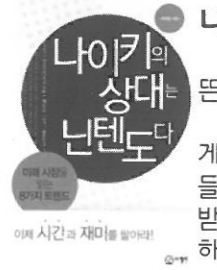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미치 앨봄 | 공경희 역 | 세종서적 | 정가 8500 |

인간의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맑고 따스한 책.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스승 모리 교수와 매주 화요일마다 10여 차례 만나 나눈 얘기를 책으로 엮었다. 인간에게 죽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의 내용이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명제는 두렵고 암울한 것이어서 피하고만 싶은 것이다. 모리 교수는 루게릭병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조금씩 죽어가면서 제자와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미와 죽음에 임하는 바른 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콜드리딩 | 이시이 히로유키 | 김윤희 역 | 용진윙스 | 가격 9800 |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금단의 대화법, 콜드리딩! 마력의 화법, 콜드리딩의 실전기 술! 마케팅부터 연애까지 모든 인간관계를 장악하라
현재 서점가에는 '대화법'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현상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언어'를 매개로 전개되는 '대화'라는 상호 작용의 중요성이 비단 비즈니스라는 사회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 그 자체에 최대 관심사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 정재운 | 마젤란 | 정가 12000원 |

나이키는 소니, 닌텐도, 애플 등을 새로운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그런데 왜 나이키는 뜬금없이 이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던 걸까?
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나이키의 주 타겟은 바로 청소년들이다. 만약 이들이 닌텐도 게임에 정신이 팔려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집밖에 운동을 즐기러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운동화를 신을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나이키는 매출·수익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스포츠업체와 게임업체 중 누가 한 고객의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 나카타 아키히로 | 정가 9500 |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20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잘될 것 같은데 매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뿐.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20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삶의 법칙을 깨닫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미칠 수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기다. 또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20세대.

편집부 기자 - 07 박동준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도서관 현장의 산증인 이용남 교수님

작은 것이 아름답다.

크고 화려한 것만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현대인들.

그런 우리들에게 30여 년간의 도서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작은 것이 미덕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용남 교수님을 만났다.

2008년 1학기를 끝으로 퇴임을 맞이하시는 이용남 교수님과 만남을 통해 도서관계를 이끌어 오신 교수님의 도서관 현장에서의 모습과 교직생활의 열정을 조금이나마 배워보자.

●교수님께서 도서관계에 발을 딛으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나를 도서관인으로 인도한 어느 선배 [교수님칼럼 2003.3]



내가 대학 입학 생각을 하던 1960년 안팎의 시절은 학교나 전공 선택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제법 여유와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고등학교 1,2학년 시절에 교지 편집의 특별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신문편집이라고 한들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체로 대학생 형들의 신문에서 많은 흥내를 내다보니, 곧잘 여러 대학의 과거 신문을 이리 저리 뒤적이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대학의 신문에서 '도서관학'이라는 생소한 학과가 그 대학에 새로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참으로 별난 학과도 있구나 하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되었을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 선택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집안에 의사와 법관이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하는데....'라며, 법학을 전공하기 바라시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무의식적으로 법대를 염두에 두어오던 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 전에 어느 대학의 신문에서 보았던 도서관학과에 대한 생각이 영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우리 고등학교에 있던 학교도서관 다망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도서관 선생님께서는 도서관학과에 대해 좀 아실 터이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사서 선생님이 아니시라, 그 당시 내 궁금증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골집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공부하던 터이라, 부모님과 상의하기도 마땅치 않았고, 주변 선배 분들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리 저리 궁리 끝에 내 판에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당시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모 대학에 직접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찌하나? 직접 아는 사람은 없고, 중간에

이리 저리 사람을 넣어 연결시켜 달라고 하자니 너무 번거롭고.....하는 수 없이 해당 학과에 직접 부딪쳐 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맡았다. 드디어 장문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아무개이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선택을 위해 도서관학과에 대해 알고 싶는데, 궁금한 것이 많으니 다음 사항을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요지였다. 즉, 4년 동안 배우는 내용, 그 학문의 장래 전망, 졸업 후의 진로, 외국에서 그 학문의 경향 등등,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 지금의 나보고 답장을 쓰라고 해도 섭지 않은 당당한 질문들을 장황하게 쏟아냈다.

의기양양하게 편지를 깨끗한 봉투에 넣어 풀을 붙인 후, 주소와 대학명, 그리고 학과 이름을 쓰고 나니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나? 한참 망설이다가, 예라 모르겠다 하고 펜을 들었다. 편지 봉투 중간 부분, 상대방 이름 쓰는 곳엔 커다란 글씨로 '아무분에게나'라고 쓰고 맡았다. 약간은 장난기도 있지 않았나 싶었다.

얼마 지난 후 나에게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학생회 일을 한다는 분으로부터였다. 자네 편지가 우리학과 학생들 간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핑퐁질 하다가, 결국은 학과 일심부름하는 자기가 답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편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되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느 일요일 날 아무 시에 어떤 차림을 하고 덕수궁 정문 앞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였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 우리는 덕수궁 안으로 들어갔다. 추운 겨울철이건만 어느 매점 벤치에 앉아 그 선배님이 사주시는 빵 한 접시를 먹으면서 몇시간 동안 도서관학 강의를 들었다.

매우 신선한 학문으로 생각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대학 2학년이나 3학년이었을 학생으로서

전공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겠느냐만, 고등학교 학생인 나에게도 대단한 분으로 여겨졌다. 서울대 입학률을 높이고 싶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우리나라 최초라는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로, 드디어 대학 진로의 결단을 내리고 맡았다.

그 후 1년쯤 뒤의 추운 입학시험 날, 내가 도서관학과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도만득'이라는 선배님은 시험장까지 나오셔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비교적 좋은 결과로 입학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마도 그 선배님의 덕분이라고 믿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입학한 이듬해에 그 선배님은 졸업하시고, 그 후로는 영영 뵈지를 못했다. 그 선배님은 군복무를 마치면서 한참 전쟁이 치열하던 월남에 간 후, 그만 실종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내가 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도니 전공 선택의 과정이 비록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어설프게 보이긴 할지라도, 부끄럽거나 후회를 한 적은 없었다. 다만 전생애 어떠한 인연이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도서관계로 끌어들이신 그 선배분과는 정작 오늘날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도서관계를 논하며 소주 한잔 기울여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서글피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이 눈치작전과 '묻지마 학과 선택'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 문헌정보학을 선택한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도서관직의 근본을 이해시키고 매력을 느끼게 하여 험난한 우리 도서관계의 미래를 헤쳐 나가도록 할 수 있는가 생각에 잠기다 보면, 마냥 새 학기의 싱그러움을 만끽 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교지 편집의 일을 하시다 우연한 계기로 도서관학과를 알게 되었고, 어떤 선배에 이끌려 도서관 계로 발을 들이신 이용남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 교수님은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계신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교수님 자신을 도서관계로 이끄신 선배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 **도서관계에 앞장서시면서 혹은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문헌정보학이란 학문은 순수학문이 아닌 현장참여 학문이다. 때문에 머무는 학자 지향 인물이 아닌 현장참여 인물이어야 한다. 대학 졸업 후, 13년 동안 농촌도서관(작은도서관, 일종의 마을도서관)에서 근무했었다. 이 일을 평생하려 생각했으나 조직이 개편 되면서 그 운동에 노선이 조금 변동됨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가져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출판관련일과 교직생활을 염두 해 두던 중, 우연히 한성대학교 교수초빙 신문광고를 보았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항상 현장도서관 발전이라는 중심개념에 몰입하여 교육해왔다. 이론위주의 수업이 아닌, 우리 도서관 발전 과정을 적용하였고 그것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내 평생을 도서관계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어느 것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 **내년 1학기를 끝으로 퇴임하시는데, 감회가 어떠하십니까?**

한성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 20여년 가까이 도서관을 봐왔고, 학교에 온 후에도 30여년 가까이 도서관을 봐왔다. 1981년 한성대학교 교수가 된 후 27년간의 도서관 현장 변화는 상당히 발전했다. 현장의 변화를 학문이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이론(학문)의 변화보다는 현장 변화의 폭이 더 컸다. 다른 대부분의 시대에는 항상 학문의 변화가 더 컸고 그 뒤를 현장이 공공거리며 따라왔을 터이지만, 한성대학교 교수가 된 후에는 현장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쩔쩔매 정도였다.

그만큼 현장의 수준과 인력(사서)의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교수라고 해서 독야천청 현장사람들이 교수를 우월하게 느끼지 않는다. 대학공부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면을 주목해야 한다. 한번 배운 지식은 그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앞으로 계신 교수님들도 학문하시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다. 즉, 교수들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 **퇴임 후 활동계획은 어떠하십니까?**

시간상 여유가 있으므로 글을 정리하고, 그동안 가보지 못한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한다.

●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학교는 작은 대학이다. 그러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라 할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강점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역사가 짧은 것을 잘 활용한다면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있어서 날렵한 몸짓으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서관·정보학·IT계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남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다. 부딪힌 상황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학문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이용남 교수님.

항상 너그럽고 인자한 웃음으로 도서관계의, 지식정보학부의 힘이 되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기에 우리 학문이 이렇게 우리 땅에 우리 학교에 훌륭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도서관계의 슈퍼맨 이용남 교수님. 지식정보학부를 영원히 빛내주시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시다.

취재 : 06 김유리, 장경선

기사 : 06 장경선

정진식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보내는 연구 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 미국을 가기로 결정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중국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2007년부터 2월부터 8월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세무대학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대륙국가의 주역이 될 중국의 심장박동을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웰빙 만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비해 중국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생활여건은 한국보다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 속도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에 첨단 장비로 전산화가 마무리 되었고 도서관의 디지털화는 물론 강의가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등에는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장춘세무대학은 약 30만평 부지에 대학생 기숙사(6층 아파트 약 30동에 학부생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함), 강의동, 연구동, 체육관, 식당, 마트등 대단위 대학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동안 6개월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다. 처음 도착한 2월 장춘의 겨울은 칼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너무 춥고 적응하기가 다소 힘이 들었다. 그러나 15일이 지나면서 곧바로 환경과 친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와 연구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엔 충분한 급여(인민폐 월 5,600원, 일반교수봉급 월3,500~4,000정도), 출퇴근 차량제공 등 비교적 VIP대우를 받으면서 韓國語會話와 朝鮮半島概況이라는 교과목을 강의 했다. 강의시간에는 짧은 중국어 실력 때문에 처음 조금은 어려웠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부터는 학생들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유난히도 해가 빨리 뜨는 중국의 아침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이런 저런 준비를 마치고 준비된 차량으로 7시에 출근해서 8시부터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고, 아침 6시만 되면 도서관 건물 6층 구석구석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더러는 큰 소리로 웅변하듯 또는 소근 소근 지껄이듯 책을 읽어가면서 자신이라는 행동에 대해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이 약 3,500석 정도였는데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로비와 복도계단에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급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한국의 대학들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국하기 20여일 전 우리학과 교수님들의 방문으로 장백산천지와 폭포, 하얼빈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태양도 그리고 호태왕(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압록강변의 지안에서 오너봉을 관람하고 강 건너편 북한의 벌거벗은 산에 얽힌 애잔한 북녘 동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아파했던 순간들, 연변에서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 등 모처럼 주어진 관광하는 시간은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 교수일행을 안내한 세무대학의 채철군 교수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영사관의 참사로 근무했으며, 유독 한국의 남북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중국 경제학자로 남북한의 정세를 한눈에 살피듯 풍성한 사연들을 북한 동포들의 독특한 톤으로 우리를 감탄케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 도서관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혁'을 주제로 하는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마치고 8월 20일 의사처장과 외국어대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15명의 환송을 받으면서 장춘공항을 떠나 학과로 돌아왔다.

다시 가고 싶은 중국의 장춘 땅! 특강 '학술논문 발표대회'는 대학 본부 측에서 특별히 마련된 것이며, 의외로 특강비를 많이 주어 두 번째 송별연을 가졌다. 특히 6개월만 더 연장해달라는 외국어학부 유서야 학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한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정년퇴임하면 장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구두약속을 남기고 떠나 왔다



③ 중국을 방문했던 지식정보학부 교수님들
[장춘 세무대학 도서관 앞에서]

NICE (New Image Challenge Everything)

스물 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에 도전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한 스물 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몇 년 동안 새 학기가 되기 전 건준위(건설준비위원회)로 시작했던 우리 과 학생회가 이번 해에는 02학번 차준호 회장을 필두로 부학생회장과 집행부가 만들어져 새로운 학생회를 이어나갔다.

스물 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의 특징이 있다면 선전부에서 실행되었던 그림비 발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편집부라는 집행부가 만들어진 것과 우리 과 학생회비를 책임지는 총무가 부장, 차장을 두면서 학생회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부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획부, 문화부, 선전부, 운영부, 편집부 총 5개의 집행부가 1년동안 지식정보학부의 행사를 이끌어왔다.

기본적으로 기획부는 운영부와 함께 행사에 실질적인 측면을 회장단과 함께 맡아왔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도맡아 해왔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운영비가 필요하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후대의 학생회까지 생각해가면서 지정의 살림을 꾸려온 집행부가 바로 운영부이다. 지금까지 해 온 모든 행사는 물론 회장단과 5개의 집행부가 함께 어울려서 일을 진행해왔지만 그 중 특히 힘을 써 준 부는 바로 이 두개의 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전부는 각 과마다 꼭 필요한 부서일 것이다. 학과의 행사를 알리는 집행부로 선전부가 없다면 어떤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모를 것이다. 이번 선전부는 2학기가 되고 난 후, 선전부 차장의 군 입대로 공석이 된 후에 부장이 혼자서 부를 이끌어 왔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집행부지만 지금까지 우리 과의 행사를 선전하는데 힘을 다해오고 있다. 문화부는 가장 활기차고 발랄한 집행부로 과 행사나 학교 행사 때 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마임실력으로 학교에서 '마임' 을 잘 하는 과로 평평이 나 있을 정도이다. 그 이름도 큐티문화부로 감쪽한 새내기들의 춤 솜씨로 학생회의 유희유 역할을 해왔다. 편집부는 학회지를 만드는 집행부로 학과 사업 중 중요한 그림비 발행을 해 왔다. 예비학교나 예비학교 때의 리플렛에서부터 한 학기에 한 번 씩 발행하는 그림비로 학 과의 소식을 그대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지정인의 눈과 귀가 되었다.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에 도전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내온 1년을 돌아보면, 이 슬로건 처럼 과를 운영해왔는지 우리가 평가하긴 부족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학생회는 분명 보람을 느낄 것이다. 각 부가 서로 다른 일들을 해오고, 행사 때마다 하나가 되어 새터 부터 지정인의 밤까지 아무 탈 없이 과를 이끌어왔다. 이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어떻게 총동이 없었겠지만은 그것도 스물 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의 또 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학과를 위해 열심히 일 해온 일꾼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학생회장 02 차준호 : 2007년 한 해 동안 학생회장을 하면서 우선, 저희 24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한 올해 학생회 였지만, 저희들을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과 저를 믿고 일 년 동안 잘 따라준 우리 부학생회장과 임원들이 있었기에 올해의 학생회는 별 탈 없이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에 도전 한다' 를 모토로 나아갔던 우리 학생회는 다음 대 25대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후배들이 저희들이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의 훌륭한 오른팔, 왼팔이 되어 주었던 부 학생회장 혜원이, 태우, 임원으로 1년 동안 함께 학생회를 이끌었던 지남이, 다환이, 경아, 우진이, 헤리, 진주, 고은이, 유리, 경선이... 그리고 군대간 돈섭이 와 용환이 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부학생회장 06김태우: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학부 부학생회장 김태우입니다" 라는 말이 1년동안 나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실어주었다. 짧지만 길지도 않은 1년, 의리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다. 새내기 입장에서 생활해오던 내가 새내기들을 받고 이끌어야 할 위치에 서있으니 설렘 반, 두려운 반이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사람' 들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고, 소중한 1년이 내 평생동안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것 같다. 지식정보학부 화이팅!

부학생회장 06김혜원: 2007년 지식정보학부 부학생회장으로 지내 온 나.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니 시원섭섭하다. 내가 무언 가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고서 그 일을 마무리할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짜증도 났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서 그 어떤 일 보다는 나에게 성취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같이 일해 준 동기들과 회장님께서는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잊지 못할 일 년을 함께해서 행복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식정보학생회가 발전하길 바란다. 좀 더 좋은 일을 만들고 과 활동을 활성화 시키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획부

부장 06유지남: 2007년도 이제 한 달 여정도 남았네요. 올해를 돌이켜 보면 저에게 있어 나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4대 학생회 임원으로서 선후배동기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은 저에게 있어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대학생활에 있어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장 06최다환: 벌써 대학교에 들어온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2학년이 되어 07학번 새내기들의 선배가 되고, 여러 선배님들도 만나뵙게 되면서 올해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1학기 때에는 과대표로, 2학기 때에는 기획부 차장으로 지정과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인연 만들고 많은 추억을 남길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며 매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부

부장 06조진주: 문화부장이 되어 처음 후배들과 함께 마임하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참 많았지만, 너무 즐거웠고 많은 것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부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도와준 선배님들, 동기들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준 07후배들 너무너무 고맙고 예쁘네요^^ 앞으로도 '큐티 문화부'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문화부 화이팅!!

차장 06 이고은: 지식정보학부의 대표적인 입장으로써 선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너무 보람되고 놓치기 싫은 경험이었다. 힘들기도 했지만 함께 일한 선배들과 동기들과 후배들이 고맙다.

26. 지정인 이야기 - 스물네 살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선전부 부장 06이혜리: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생회를 마치며 글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 와있네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선전부 선배님들, 학생회 임원분들과 저희 선전부 06, 07학번 부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추억들과 고마움이란 빛을 지고 3학년이 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스물네살 지식정보학생회 영원하라, 파이팅@

운영부

부장 06임경아: 새로운 마음으로 운영부 부장을 맡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그동안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학생회 모든 사람들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운영부로서 학생회비의 투명한 지출에 힘을 썼습니다. 다음 학생회, 나아가 몇 십년 뒤 학생회도 학생들의 소중한 회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고 올바른데 지출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일한 학생회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몸담았던 스물네살 자주 적지식정보학부 학생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장 06유우진: 24대 지식정보학부 학생회의 운영차장직은 나의 2년 대학생활 중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은 늘 그러하듯이 어수선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를 거듭할수록 자신감도 붙고 요령도 터득할 수 있었다. 비록 더 많은 것을 해내기 전에 임기가 끝나서 아쉽기도 하지만, 바통을 이어받을 후배들이 워낙 끝내주는 놈들이라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가장 큰 행사인 '지정인의 밤' 만 남겨두고 있고,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임기를 마치고 싶다. 결국 우리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25대 학생회는 우리의 포부였던 '역대 최고의 학생회' 가 꼭! 되어주길 진심으로 빈다. 25대 파이팅!

편집부

부장 06김유리: 편집부가 생긴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회지를 만든다는 부담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과의 소식을 알리고 글로써 학우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보람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편집부를 하면서 제가 얻은 소중한 것은 새내기기자단인 후배들이었고 지금까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부 기반을 제가 잘 다져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편집부가 지식정보학부의 꼭 필요한 집행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장 06장경선: 편집부 차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란 무거움에 이리저리 고민하던 지가 어제 일만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임기를 아쉬움 속에 마치게 됐다. 학생회라는 명분아래 동기·선배·후배들과 돈독한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서툴지만 책임감이라는 값진 배움을 얻어 더욱 보람된 한 해였다. 학생회를 그리고 편집부를 07학번 학우들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이어갔으면 한다. 24살 학생회 여러분,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취재, 글 : 편집부장 06 김유리



편집후기

■ 편집부장 06 김유리

벌써 2007년의 마지막 그림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림비는 1학기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번보다 잘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후배들에게 지어준 거 같아 미안함이 먼저 듭니다. 그림비를 기획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김양우 교수님, 강순애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글 써주신 정진식 교수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용남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그림비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이 되어주는 학생회 친구들, 그리고 인쇄소까지 같이 가주시고, 항상 신경써주는 차준호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장을 1년 동안 힘든 내색 없이 착하게 잘 따라 와 준 사랑하는 편집부 후배들, 많은 기사 양에도 부장 걱정하면서 도와준다면 차장 경선이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못 할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집부 더 많은 발전하길 바라고요~ Vitamin 편집부 화이팅 !!

■ 편집차장 06 장경선

임기를 마치며 바통을 07에게 넘기는 입장에서 편집부 후배들에게 많은 점을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2007. 2번째 그림비를 발간하며 좀 더 향상된 글 솜씨로 열심히 기사를 써 준 새내기 기자단이 무척이나 대견스러웠고, 차기 부장·차장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함께해온 우리 07새내기 기자단이 그 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년 08새내기 기자단과 함께 좀 더 성장하는 편집부가 되었으면 한다. 그림비 제작에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학생회 여러분, 고생 많았던 부장님, 끝까지 믿고 따라준 07새내기 기자단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07 김남식

기사를 쓰기 위해 우리학과를 졸업 한 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직업들이 우리학과와 연관이 되어있고,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면서 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학과의 미래도 점차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졸업하고 꼭 사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업에서 전공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졸업 후 전망이 꼭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 07 박승호

이 기사를 쓰면서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것 같다.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동기를 부여 해준 것 같아서, 기사를 쓰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이 기사를 쓰면서 느낀점은 순간의 이끌림에 선택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 07 박동준

이제 편집부 생활을 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유리 선배님의 재치에 끌려 들어간 편집부. 처음 기사 쓸 때는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편집부 생활 기억이 무지 많이 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군대를 가게 되고 08학년들의 편집부가 탄생되겠군요.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비는 편집부원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 재밌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7 윤예림

처음 쓰는 기사도 아닌데 쓸 때마다 막막한 이유는 뭘까요.. 한성대학교 개교 35주년에 대해 조사하면서 학교에 많은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지만 기자 역할을 하면서 얻는 것 역시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기사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서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편집부를 이끄는 부장 유리선배님, 차장 경선선배님 수고 하셨습니다~

■ 07 이다나

저번 그림비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벌써 두 번째 그림비인데 항상 할 때마다 기사를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떻게 쓰면 잘 써질지를 고민한다. 이번 그림비에 기사를 쓰면서 저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보이길 바란다.

■ 07 장한별

부담이 컸던 두 번째 그림비... 여기저기 주워 들은건 많아가지고 쉬울 줄로만 알았던 재테크기사였는데 막상 기사를 쓰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재테크에 무지한지만 깨달았다. 모쪼록 우리 기사를 읽고 지식정보학부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기를... 그리고 전보다 발전한 그림비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 07 정지환

우리가 맡은 기사는 한성대학교에서 하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혜택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모르는 행사나 혜택 등이 많았고 취업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량의 정보를 준 취업지원센터에 감사하고 같이 조사한 현지야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 07 최현지

어쩌다보니 1학기 그림비에는 참여를 못하고 2학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기사를 맡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과제가 많은 시기에 하게 되어서 정말 벅찼다. 마감에 임박해서야 기사를 완성하는 짜릿함이란. 담당하게 된 분야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혜택인 만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취업에 편중되어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그리고 자주 이용하게 될 부분은 너무 복잡하거나 아예 시행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아쉬웠다.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을 다루게 된다면 그때는 개선된 모습의 한성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하느라 애쓴 지환이 고생 많았다.ㅋㅋ

■ 07 황인영

입학해서 집부활동을 해온지가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울고 웃을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편집부에 소속되어서 나 에게 두 분 다 완소이신 부장님! 차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부듯하기도 하고, 행복해요 ㅋㅋ허허 2학년 되어서도 자부심을 갖고 편집부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자단 여러분 모두 다 수고했고, 단결 잘 되는 편집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쭈욱~

■ 07 허지영

1학기 그림비 기사를 쓰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 그림비가 출간되다니!!!! 정말 너무나 부듯하네요! 200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실감 나고요. 지난 1년 동안 지식정보학부에 들어와서 새로이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 기사를 쓰면서 그 점에 대해 더욱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 회에 이어 이번 그림비까지 참여하게 되어 너무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영양가 있고 멋진 그림비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Vitamin 편집부

☞ 편집부장 06 김유리

☞ 편집차장 06 장경선

☞ 새내기 기자단 : 07 김남식, 07 박동준, 07 박승호, 07 윤예림, 07 이다나
07 장한별, 07 정지환, 07 최현지, 07허지영, 07 황인영



발행일 : 2007년 12월 4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발행인 : 06 김유리

그림비 발행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지식정보학부 학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비는 '청년'을 뜻 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VITAMIN 편집부